

지역사 인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박기종 사례를 중심으로

현 문 수** · 김 동 철***

1. 머리말
2. 지역사 인물 콘텐츠 설계 방법
 - 1) 인물 선정
 - 2) 인물 맥락 조사
 - 3) 콘텐츠 설계 범위 설정
 - 4) 기록·자료의 심층 조사 및 조직
 - 5) 지역사 인물 콘텐츠 설계 및 기술
 - 6) 전문가 및 지역민 참여 유도
3. 부산의 로컬리티로서의 박기종
 - 1) 박기종 생애사 연구
 - 2) 관련 사건과 공간 연구
 - 3) 콘텐츠 범위 설정
4. 박기종 콘텐츠 설계
 - 1) 자료 수집
 - 2) 컬렉션 구성
 - 3) 사례 콘텐츠 설계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H00006)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주저자). 주요 논저: 「공공 전자기록의 생애주기 기반 관리 비용 모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1), 2013.

***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교신저자). 주요 논저: 「근대 부산의 교통 발달과 기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011; 「1880년 제2차 수신사의 향서기 박상식의 사행일기 『동도일사』」, 『서지학연구』 제51호, 2012.

[국문초록]

인물은 지역의 로컬리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며, 지역사 인물의 기록화와 콘텐츠 개발은 로컬리티 기록화 및 콘텐츠 개발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로컬리티를 대표할 인물을 선정하고 그가 생산했거나 그에 대해 생산된 기록을 바탕으로 증거에 기반하여 지역사 인물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 방법을 사용하여 개항기 부산의 로컬리티를 대표하는 인물인 박기종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사례 구축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로컬리티를 재현해줄 수 있는 인물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로컬리티가 투영된 인물을 선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맥락 조사를 실시하였다. 맥락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콘텐츠 설계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이 범위에 해당하는 기록과 자료를 조사하여 기록 중심의 지역사 인물 콘텐츠를 설계하였다.

아직 지역의 로컬리티를 재현할 수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 연구는 일반적인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과 인물 기록화 방법을 바탕으로 지역사 인물을 기록화하고 이에 기반을 둔 콘텐츠 개발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제안한 지역사 인물 기록화 및 콘텐츠 개발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 고유의 로컬리티를 확인하고 이를 투영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함으로써, 특정 시기 특정 공간의 정체성이 투영된 지역사 인물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어: 지역사 기록화, 인물 콘텐츠, 콘텐츠 개발, 박기종, 부산

1. 머리말

특정 시기 특정 공간의 문화를 공유하며 살았던 인물은 그 지역의 로컬리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다. 국내에서는 특정 커뮤니티나 공간을 중심으로 로컬리티를 기록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으나 특정 지역이나 공간 기록화만으로 로컬리티 기록화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로컬리티는 지역에 해당하는 로컬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국가 혹은 세계 체제 내에서 상대적 혹은 관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특정 장소, 즉 로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양한 (비)물질적 실체들(realities)과 이와 관련된 성질”¹⁾로 정의되고 있으며, “장소성”이면서도 “장소가 갖는 특정한 문화”이자 그 문화에 “참여했던 인간의 흔적”²⁾이다. 이에 로컬리티 기록화 역시 “지역에 토대를 둔 행위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증거할 수 있는 기록”³⁾을 수집하고 생산해야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갔던 인물들의 기억과 그들의 역사를 남기는 일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로컬리티가 투영된 지역사 인물의 기록화 및 콘텐츠 개발이야말로 로컬리티 기록화 및 콘텐츠 개발에 있어 반드시 포함해야 할 영역이다.

최근, 남겨진 기록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교수·학습이나 연구를 위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⁵⁾, 특정 아카이브가 소장한 일부 기록의 특정 주

1) 박규택, 「로컬리티 연구의 동향과 주요 쟁점」,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2009, 107-143쪽.

2) 이명수, 「로컬, 로컬리티 그리고 인문학적 공간: 로컬리티토로지 도달에 관한 동양학적 전망」, 『로컬리티 인문학』 3, 2010, 47-73쪽.

3) 설문원,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011, 207-230쪽.

4)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2012a, 3-44쪽.

제영역을 포괄하여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 연구⁶⁾, 문화재 콘텐츠 개발⁷⁾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결과 지역사 인물 콘텐츠 개발에 적용하기에는 일반적인 기록 기반 콘텐츠 개발 절차를 논하거나 특정 공간 및 목적에 맞추어 그 개발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으로, 지역사 개발 및 지역의 스토리텔링과 관련하여 문화콘텐츠의 일부로 인물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시도⁸⁾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이나 문화 사업의 목적으로 지역의 중요 인물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문화자원화하고 있어, 구체적인 시기와 공간의 범위에서 지역의 로컬리티를 재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로컬리티를 반영한 인물을 선정하고 기록을 통한 신뢰성 있는 지역사 인물 콘텐츠를 개발하여 그 로컬리티를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로컬리티를 대표할 인물을 선정하고 그 가 생산했거나 그에 대해 생산된 기록을 바탕으로 증거에 기반하여 지

-
- 5) 심성보,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기록학연구』 16, 2007, 210-256쪽; 우지원·이영학,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67-92쪽; 이은영,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구조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8, 2011, 83-121쪽; 이은영,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절차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9, 2011, 129-173쪽; 이은영, 「교육과정 분석에 따른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의 예시 설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165-188쪽.
 - 6) 박경환, 「기록유산을 활용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 ‘조선시대 사행문화 콘텐츠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2, 2008, 313-341쪽; 전수진, 「보존기록관리기관의 온라인 콘텐츠 유형과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2008, 127-152쪽.
 - 7) 류한조·김익한, 「기록 콘텐츠 개발 모형에 관한 연구: 건축 문화재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2009, 221-248쪽.
 - 8) 신춘호, 「소현세자빈 강씨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소고」, 『인물콘텐츠』 17, 2010, 393-418쪽; 윤유석,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 역사인물의 대중화」, 『인물콘텐츠』 19, 2010, 301-325쪽; 이창식·강석근, 「신라인물 김대성의 원형과 스토리텔링 창작」, 『신라문화』 37, 2011, 147-178쪽; 한광식·강석훈, 「근대인물 문화재 가치창출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법」, 『서울도시연구』 12(1), 2011, 107-126쪽.

역사 인물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 방법을 사용하여 개항기 부산의 로컬리티를 대표하는 인물인 박기종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사례 구축해보았다. 우선 당시 부산의 로컬리티로서 박기종이라는 인물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생애사는 물론, 부산의 로컬리티와 관련하여 그와 연결할 수 있는 공간과 사건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과 자료 및 소재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로컬리티 기록 콘텐츠 설계 방법에 따라 박기종 콘텐츠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조직해 컬렉션을 구성하였으며, 관련 사건과 공간 분석을 통해 설정한 주제 영역에 대해 인물 박기종의 기록과 자료를 연계하여 관련 공간 및 사건을 아우르는 지역사 인물 콘텐츠를 설계한다.

2. 지역사 인물 콘텐츠 설계 방법

본 연구는 우선 로컬리티를 재현해줄 수 있는 인물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로컬리티가 투영된 인물을 선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맥락 조사를 실시하였다. 맥락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콘텐츠 설계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이 범위에 해당하는 기록과 자료를 조사하여 기록 중심의 지역사 인물 콘텐츠를 설계하였다.

1) 인물 선정

지역사 인물 콘텐츠 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로컬리티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는 단계, 즉 이후 컬렉션을 구성하고 콘텐츠를 개발할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지역에서의 콘텐츠 개

발 대상 인물은 보통 “인물의 출생지와 지역 관련성”⁹⁾의 두 가지 기준으로 선정된다. 그런데 지역사 인물 콘텐츠의 경우 단순히 어떤 지역에서 출생하였거나 중요한 활동을 했던 인물이라는 기준만으로 그 지역의 특정 시기에 해당하는 로컬리티를 충분히 투영할 있는 개체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로컬리티 콘텐츠의 개발 대상이 될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공간과 시기를 선택하고 이를 특징할 로컬리티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산은 1876년 개항된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장이다¹⁰⁾. 1882년 부산에 입항한 외국 선박은 기선 33척, 범선 130척으로, 대부분은 일본 선박이며, 1883년에는 영국 기선 4척, 청국 기선 1척, 일본 기선 61척이 입항하였다.¹¹⁾

한편, 부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장, 일본과 가장 가까운 개항장이란 시간과 거리의 계량적 수치의 의미만 가지는 개항장은 아니었다. 1876년 개항 전에 부산에는 일본인 마을인 왜관이 존재해, 근대 이전에 개항을 경험한 유일한 도시였으며, 왜관이 있던 공간은 개항 후 일본인 조계지로 바뀌었다. 이처럼 부산은 전근대와 근대가 이어지는 개항의 경험을 유지한 유일한 열린 도시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개항의 경험과 도시의 성격 때문에 개항기 부산항을 조선인과 일본인의 ‘섞임의 공간’으로 보기도 하였다.¹²⁾ 이처럼 개항기 부산은 일본이라는 열강

-
- 9) 김홍식·김진형, 「경기도 역사인물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OSMU 적용방안」, 2011, 35쪽.
 - 10) 개항의 시대가 열렸지만 모든 항구가 개항장이 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조약에 따라 일부 도시만 개항장이 되었다. 1876년 부산, 1880년 원산, 1883년 인천이 그것이다. 10여 년 후 1897년 목포·진남포, 1899년 군산·성진·마산이 칙령으로 개항장이 되었다.
 - 11) 김재승, 「부산해관 개청과 초대해관장 W. N. Lovatt」, 『국제무역연구』 9(2), 2003, 1-33쪽.
 - 12) 차철욱·양홍숙, 「개항기 부산항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 형성」, 『한국학연구』 26집, 2012, 7-43쪽.

으로부터 신문물을 경험하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 국민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여러 시도가 있었으며, 결국은 경부선의 종착역인 부산역과 부산항을 통해 수탈과 식민지화의 전초기지가 되는 모순의 공간이기도 했다.

개항 이전에 부산 지역 토박이로서 왜관을 비롯한 대일 교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은 한 인물은 박기종 등 하급 일본어 통역관인 소통사들¹³⁾이며, 개항장 부산에서 근대를 향한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 역시 지역의 토박이들로, 박기종도 부산초량의 통사 자격으로 1876년(제1차)과 1880년(제2차), 2차례 일본 수신사행 때 통역관 자격으로 일본을 경험하였다.¹⁴⁾ 그리고 개항장이자 고향인 부산에서 부산항 경찰관·경무관·사검관, 다대진첨사, 절영도진첨사 등을 역임하면서도, 부산 최초의 신식학교인 개성학교를 설립하고, 한국 최초의 민간철도회사인 부하철도주식회사 등 여러 철도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기선회사 설립하는 등 근대를 향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다.¹⁵⁾ 또한 부산 토박이들은 지속적인 대일활동 전통을 계승해 개항 이후 일찍부터 일본 유학을 다녀왔는데, 박기종 역시 장남 박정규를 일찍부터 일본으로 유학보내 일본 사도(佐渡)에서 3년간 채광·야금 등 광물학 공부를 하게 하였으며, 차남 박창규는 일본 철도학교로 유학을 보낸¹⁶⁾ 바 있다.

이처럼 박기종 집안은 개항 전부터 대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과 전통을 살려, 개항 후 부산에서 근대적인 삶과 활동을 한 대표적인 집안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박기종은 일본 근대의 경험과 함께 개항장 부산을 산 대표적인 토박이다. 『동래통안』 기사년(1893) 5월 18일자에서는

13) 김동철, 「17-19세기 동래부 소통사의 편제와 대일활동」, 『지역과 역사』 17, 2005, 209-231쪽.

14) 김동철, 「1880년 제2차 수신사의 향서기 박상식의 사행일기 『동도일사』」, 『서지학연구』 51, 2012, 387-415쪽.

15) 김동철, 「박기종의 『상경일기』 해제」, 『상경일기』, 부산근대역사관: 부산, 2005.

16) 장남은 1892년 8월 귀국하였다. 민건호, 『해은일록』 1892년 8월 26일.

“박기종은 이 지역 토착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일본인과 함께 처신하기를 익혀 바깥 사정에 밝아서, 부산항 내의 모든 사무가 매번 이 사람의 경륜에 의존하니, 이것은 경향 간에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였다. 부산의 토박이로서, 일본의 통역관으로서, 개항장의 관료로서 살아갔으며, 끊임없이 민족자본의 힘을 키우고자 했으면서도 결국 일본에게 모든 권리를 내주고 말았던 그의 삶은 부산 제일의 일본통이자 개항기 부산 지역의 로컬리티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2) 인물 맥락 조사

로컬리티를 대표할 인물을 선정한 다음 단계는, 대상 인물과 관련하여 로컬리티의 특성을 담고 있는 사건과 맥락을 포함해 인물을 둘러싼 광범위한 맥락을 조사하는 일종의 예비 조사 단계이다. 기록의 경우 그 내용이나 구조는 물론이고 맥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해야만 덩어리로 묶어낼 수 있다. 특히 비교적 충분한 맥락 정보가 생산 시점에 획득되는 공공기록이 아니라 맥락 없이 산재해 있는 로컬리티 기록을 수집하거나 그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는 경우, 여러 기록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기록을 묶어주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맥락 조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 인물의 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선정된 인물이 활동했던 공간, 활동 내용은 물론, 이를 증거할 수 있는 기록과 다양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이후 콘텐츠 설계의 범위를 설정하고 심층적으로 기록과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소재를 확인하는 기초를 마련한다. 인물에 대한 충분한 생애사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인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관련 기록과 사건 및 공간 사이의 관계도 확인한다. 나아가 컬렉션 구성과 최종 콘텐츠 구성의 틀도 이 단계를 거쳐야 그럴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 인물 콘텐츠 개발 사례로 선정한 박기종에 대해 충분한 생애사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사건과 기록을 연대기적으로 조사하면서 콘텐츠 개발 범위 설정의 기초가 될 활동-기록 연계표 작성을 시작하였다. 활동-기록 연계표는 연도순으로 박기종의 중요 활동과 관련 기록, 관련 장소, 기록 소장처 등의 정보로 구성하였다. 기록과 자료의 출처 맥락과 원질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집 기록인 점을 고려하여, 이후 컬렉션 구성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면서도 콘텐츠를 설계할 수 있는 주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3) 콘텐츠 설계 범위 설정

세 번째 단계로, 인물 선정 및 맥락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기록과 자료를 분석하여 인물 콘텐츠를 설계할 범위를 정한다. 기록과 자료 분석을 진행하면서 앞선 단계에서 작성하기 시작한 활동-기록 연계표를 완성하고, 이 연계표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설계할 수 있는 주요 영역을 선정한다. 선정된 영역별로 다시 세부 콘텐츠를 기획하여 콘텐츠 설계 영역과 세부 콘텐츠, 그리고 해당 기록과 관련 개체(콘텐츠, 기록, 자료 등)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 인물 콘텐츠의 설계 범위를 확정한다.

이 연구가 선정한 ‘박기종’을 대상으로 맥락조사를 거치면서 그와 관련된 주요 사건을 확인하였다. 박기종은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수신사 통사 및 역관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후 부산에서 여러 관직을 겸했다. 관직에서의 경험과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신식 문물에 대한 동경 등이 시기 그의 일상은 일부이나마 그의 일기인 『상경일기』와 『도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철도 회사를 설립하고 철도 부설을 계획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간 일련의 사건 역시 그의 일생에 중요한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부산의 로컬리티의 일면을 드러내주

는 사건이라 하겠다. 한편, 부산 최초의 신식학교인 개성학교를 설립해 일본어를 교육하였고, 부산상무소를 조직하여 지역 상인들을 규합하고자 했던 사건 역시 주목할 만한데, 두 기관 모두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이면에 계몽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일본의 제국주의를 일정정도 도운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기록 연계표를 통해 개항기 부산의 로컬리티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여겨지는 핵심 사안을 바탕으로 ‘철도’, ‘부산항’, ‘개성학교’ 등 3개의 주요 콘텐츠 영역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 중 ‘철도’ 영역을 중심으로 콘텐츠 개발 사례를 제안할 것이며, 철도 영역 외의 활동이나 기록을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4) 기록·자료의 심층 조사 및 조직

네 번째 단계로, 설정된 콘텐츠 설계 범위에 맞추어, 대상 인물과 공간, 사건 등과 연결되는 기록과 2차 자료를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기록은 특정한 주체가 활동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활동의 결과물 이므로 기록이야말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도구¹⁷⁾이다. 일정한 시기 범위에 특정 공간에서 활동한 인물의 기록에 대한 조사가 지역사 인물 콘텐츠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작업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지역사 인물 콘텐츠를 구축할 때, 다양한 출처로부터 확인된 기록과 자료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직접 기록과 자료를 확보하거나 그 기술정보나 소재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콘텐츠 기술 시에도 원 자료 및 기술정보와 소재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박기중 콘텐츠를 구성할 기록을 1970년대 이래 박기중을 연구하여

17) Yeo, Geoffrey, "Concepts of records(1): evidence, information, and persistent representations" *American Archivist* Vol.70, 2007, pp.315-343.

발간한 논문과 간행물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서와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박물관은 물론 이후 부산시에서 박기종 유물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과정에 생산된 기록과 박기종을 주제로 출판된 여러 2차 자료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기록과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 기록과 자료가 박기종의 활동을 증거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건을 증거하는가에 대해 분석하면서 콘텐츠 설계 범위에 있는 사건이나 공간과 매핑(mapping)하는 과정도 거쳤다.

여러 기록과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들 모두 소장처가 다르고 기록과 자료에 존재하는 일정한 원질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기록의 질서를 만들어 시리즈를 구성하고 컬렉션을 조직하기 위해 4가지 시리즈 구성 방식¹⁸⁾ 중 ‘생산’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시리즈 및 컬렉션을 구성하기 위해 앞서 소재를 확인한 기록을 정리해 목록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가 확인한 기록과 자료 중 2차 자료와 부산시 기록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기록과 자료는 박기종을 그 출처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의 인물인 박기종 컬렉션을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앞서 작성한 목록을 근거로 일차적으로는 출처와 활동의 연관성, 즉 사안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기록 및 자료의 유형에 맞추어 시리즈를 구성하였다.

5) 지역사 인물 콘텐츠 설계 및 기술

다섯 번째로, 설정된 주제 및 사건의 범위에 맞추어 심층적으로 조사한 기록과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 인물 콘텐츠를 설계하고, 다양하게 확인된 원 자료 및 기술정보와 소재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정해진 범위에 맞추어 지역사 인물 콘텐츠를 기술한다. 로컬리티

18) Miller, Fredric, M,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1990, 조경구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진리탐구: 서울, 2002, p.115.

기록 콘텐츠의 구조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기록자료를 활용하되 기록을 제공하여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자의 의도를 최소한으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¹⁹⁾되고 있다. 또한 기록자료를 활용하여 설계된 로컬리티 기록화 사례²⁰⁾를 통해서도 기록을 활용한 방식이 스토리텔링 방식만큼이나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개발 방향을 수용하여, 설계자의 상세한 맥락 기술 대신 콘텐츠 설계 범위에 맞는 기록과 이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시해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단, 설계자의 개입은 최소화하되, 콘텐츠 설계 이후 지역민이나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해석을 점층적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앞선 단계에서 조직한 컬렉션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기술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콘텐츠와 연결시키는 구조를 택하였다.

6) 전문가 및 지역민 참여 유도

설계한 지역사 인물 콘텐츠를 웹페이지 상에 공개하고, 작성한 콘텐츠, 즉 인물과 관련된 사건이나 공간 등의 세부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해석, 주제 기술 등을 유도한다. 로컬리티 기록화에 있어 “이용자나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²¹⁾는 점은 이미 강조된 바 있으며, 영국의 People's Collection Wales²²⁾를 비롯한 사례 역시 지역민과 이용자 참여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을 로컬리티 기록화에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9)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콘텐츠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2012b, 317-342쪽.

20) <http://valley.lib.virginia.edu/> 참조.

21) 설문원, 앞의 글, 2012a.

22) <http://www.peoplescollectionwales.co.uk/>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자의 의견과 해석을 최소화하고 이후 지역 전문가와 이용자의 참여 기술과 해석을 더해감으로써 콘텐츠 설계와 기술로 개발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로컬리티 안에서의 시각과 밖에서의 시각이 공존하면서 콘텐츠가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살아있는 콘텐츠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다만, 아직 참여형 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연구가 미미하고 그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도 더 나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 방식과 각 해석을 콘텐츠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진전된 논의를 위해 제외하였으며, 4장에서 사례 콘텐츠 개발에서도 제외하였다.

2. 부산의 로컬리티로서의 박기종

1) 박기종 생애사 연구

(1) 출생 및 가문

박기종은 자는 형진, 본관은 밀성(밀양)이다. 1839년(헌종 5) 11월 27일(음) 지금의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에서 태어났다²³⁾고 한다. 그러나 박기종은 『상경일기』 1898년 11월 29일자에 “생일을 이곳[서울]에서 맞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었으며, 민건호의 일기인 『해은일록』 1890년 11월 29일자에도 “오늘 경찰[박기종]의 생일이다. 많은 음식을 보내와서 배불리 먹고 취했다.”라고 적고 있어, 두 일기 내용으로 보아 11월 29일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지를 통해 드러난 그의 가문을 살펴보면, 증조 할아버지는 박운홍,

23) 김의환, 앞의 글, 1971.

할아버지는 박춘언, 아버지는 박영순, 어머니는 오씨이며, 처는 윤씨인데, 어머니와 처의 관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박기종이 중심이 되어 1906년에 세운 ‘유원각선생매안감고비’에는 자신들의 선조가 대일 교린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비의 이름인 유원각은 소통사가 근무하는 통사청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의 직계 선조가 하급 통역관인 소통사로 활동한 경력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박기종 직계의 경력 중 유일한 것은 아버지가 동래부의 무임인 장관청 초관(哨官)을 역임²⁴⁾하였다는 기록뿐이다.

박기종의 가족을 살펴보면, 그는 2남 4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박정규, 차남은 박창규이다. 장녀는 김장태의 부, 차녀는 김관태, 삼녀는 변한경, 사녀 박영자는 윤상은과 혼인하였다.²⁵⁾ 박정규는 일본에 유학하여 사도(佐渡)에서 광물학을 공부하고 왔다. 광무국 주사, 공무아문 주사, 농상공부 기사, 동래감리서 주사, 삼화감리서 주사를 역임한 후, 함양군수, 밀양군수, 진주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박창규는 경상도관찰부 주사, 수륜원 주사, 동래감리서 주사 등을 역임하였다.

박기종 집안은 선대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 박기종대에 와서 가문을 일으킨 것 같다. 『도총』 1898년 5월 7일에서 “고향집에 오륙십 명의 식구를 재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돌보지 아니하고”라고 한 것처럼, 박기종은 그 집안의 중심 인물로 자리잡고 있었다. 박기종 가문의 위상은 혼인 관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녀 박영자가 양산(구포) 지역의 유지로 사천현감을 지낸 윤홍석의 아들 윤상은과 혼인한 것은 단적인 사례이다. 윤상은 집안은 구포의 명문가였다. 윤상은은 구포와 초량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료, 지주, 은행가, 지역 유지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윤상은은 동래감리서 주사, 구포사립구명학교 발기인 및 초대 학감 등을 역임

24) 손숙경·이훈상, 『조선후기 동래의 무청선생안과 무임 총람』, 동아대 한국학연구원, 2009, 66쪽.

25) 김의환, 앞의 글, 1971.

하였다. 특히 1909년 구포저축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1912년 구포은행으로 전환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은행의 효시다.²⁶⁾

근대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유지인 부산의 박기종과 구포의 윤상은의 만남은 부산 근대사의 한 상징적 사건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002년부터 부산을 빛낸 인물을 발굴하여 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박기종은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로 경제분야에서 '강식진, 구인회, 신덕균, 윤상은'과 함께 2004년 12월 선정되었다. 장인과 사위(윤상은)과 나란히 선정되었다. 박기종과 윤상은은 개항장 부산, 근대 부산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다. 박기종은 개항장 부산의 로컬리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2) 일본어 역관

현재 드러난 바에 의하면 박기종은 그의 가문에서 최초의 소통사이다. 박기종은 1869~1871년 당시 동래부 소속 소통사로 활동하였다. 1869년에는 거제도 옥포통사였다. 개항 전 초량왜관에서 근무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다만 『부산부사원고』에서는 동래부 별장으로, 구부산관(舊釜山館, 왜관)의 통사가 되었다고 서술²⁷⁾하고 있다.

개항 당시 박기종은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일본어 통역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개항 이후 일본에 파견된 제1차(1876년), 제2차(1880년) 수신사 때 통역관으로 발탁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부산 출신으로 1, 2차 수신사 모두에서 통역관이 된 사람은 박기종 뿐이다. 일본 외무성에서 편찬한 『항한필휴』에 1876년 제1차 수신사 정사 김기수를 비롯한 「조선국 신사 일행 성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박기종의 이름도 통사(소통사) 4명(김복규, 김웅기, 박기종, 김채길) 중 한 명으

26) 차철욱, 「근대 부산의 경제인 윤상은의 생애와 활동」, 『부산의 근대 자본가 청년 윤상은의 일생』, 부산근대역사관, 2010

27) 부산부, 『부산부사원고』 6(영인본), 민족문화, 1984, 279쪽.

로 실려 있다. 부산 출신인 역관 김채길과는 개항 이후에도 함께 활동했다. 민건호의 『해은일록』 1884년 1월 1일 일기에는 “박기종과 김채길 이 보러 왔다. 두 사람은 본래 통사였는데 지금은 오위장이 되어 부산에 살고 있다.”라고 하였다. 1880년 제2차 수신사(정사 김홍집) 때 향서기로 참가한 동래 출신 박상식의 일기 『동도일사』에도 박기종은 통사 3명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박상식의 일기에 박기종이 기록되어 있고, 양자가 같이 일본에 갔다 온 점에서 본다면 양자와의 관계는 깊었다고 본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박상식이 1882년 사망했기 때문에 양자가 개항장 부산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3) 부산항 관리

그 후 박기종은 부산항 경찰관, 사검관, 경무관, 다대진첨사, 절영도진첨사, 외부 참서관 등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절영도진의 폐진에 따라 마지막 첨사가 되었다. 또한 그는 개항장 부산의 어세(漁稅) 감독과 치안, 무역 등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1883년 12월부터 부산항 감리서 서기로 근무한 민건호의 『해은일록』에는 박기종과 관련된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민건호의 직책인 부산항 감리서 서기와 박기종의 직책인 부산항 경찰관, 경무관은 개항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상에서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해은일록』에는 박기종의 이름이 한자로 ‘朴基鍾, 朴琪鍾, 朴琪宗, 朴琪淙, 朴琪踪’ 등 다양하게 적혀 있다. 그리고 박기종이 경찰관과 다대진첨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박기종을 ‘박경찰, 박다대, 경찰령’ 등으로 적고 있다. 『해은일록』은 박기종 본인이 남긴 『상경일기』와 『도충』에서보다 개항기 부산항에서 경찰관, 경무관, 사검관, 다대진첨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살아간 관료로서의 공적인 활동이나, 일상적인 사적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관과 첨사로서 활동한 공을 기리기 위해, 1893년 9월 순사청이 세운 ‘행경

찰관박공기종열세불당비'와 1895년 3월 교리군민들이 세운 '행침사박공기종영세송덕비'가 현재 정공단부산시 동구 좌천동 안에 남아 있다.

박기종은 부산항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동래부, 부산진, 다대진, 일본 영사관, 중국 영사관, 부산 해관 등 공적 기관에 근무하는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서양인 그리고 부산에 개설된 은행이나 회사의 일본인 임원, 부산 조계지에 거주하는 일본인, 중국인 등 많은 사람들과 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부산항 제2대 해관장인 Piry(帛藜, 프랑스인)의 관사에서 1887년경에 찍은 사진에는, 경찰관 박기종, 동래부 사경 부산항감리 김학진, 부산해관장 Piry, 해관 한국인통역관의 4명의 모습²⁸⁾이 함께 보이는데, 이는 박기종의 인적 관계를 보여주는 드문 사진 자료이다.

(4) 기업가: 기선회사 및 철도회사 설립

박기종은 개인적으로 부산 앞바다에 어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박기종이 쓴 『도총』 광무 3년(1899) 5월 7일에 보면 “해마다 업으로 삼은 어기[어장을] 돌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 권술들의 생활이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해은일록』 1890년 11월 16일에서 “경찰박기종, 경남과 일본인 마즈오가 새로 구입한 소화륜선 웅내환을 타고 부산항에서 쾌속으로 부산 경찰의 어장에 가서 대구 잡는 것을 관람하였다.”라고 하였다. 대구잡이 등 박기종이 경영하고 있는 어장은 그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박기종은 기업 활동을 시작하였다. 1889년 기선회사, 1898년 부하철도회사, 1899년 대한국내철도용달회사, 대한철도회사, 1902년 영남지선철도회사 설립이 그것이다. 박기종은 이 회사 설립에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원·경의철도 부설

28) 김계승, 『기록사진으로 보는 부산·부산항 130년』, 부산시 중구청, 2005, 45쪽.

및 국내 철도지선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박기중은 1898년 외부 참서관으로 임명된 이후 필생의 소원인 철도건설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한 번도 철도건설을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철도건설 계획은 근대문명의 도입단계에서 후진국 어느 나라든 쉽게 경험하는 시행착오의 한 단면이다. 외래 자본주의의 압박, 그것과의 타협성, 기술력의 부족, 자신의 한계성 등 여러 이유로 실패하고 말았다. 철도 건설로서 이루지 못한 그의 근대를 향한 꿈은 1895년 5월 부산 지역 최초의 신식학교인 개성학교의 설립으로 결실을 맺었다.²⁹⁾

박기중이 주도하여 설립한 각종 회사의 임원과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므로 더욱 인적 관계가 깊었다고 본다. 박기중은 부하철도회사(1898년), 대한철도회사(1899년), 영남지선철도회사(1902년) 등 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철도 건설에 주력하였다. 이 회사 임원 가운데 박기중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은 민영철이다. 민영철과 박기중은 세 회사 모두 임원으로 활동했다. 민영철은 박기중과 함께 경부철도주식회사에 가장 깊이 관여한 한국 사람이다. 『상경일기』는 무술년(1898) 2월 21일(양 3월 13일) 수친 민참관으로부터 빨리 상경하라는 전보가 와서 29일 화륜선에 탑승하겠다는 답장 전보를 치고, 상경할 행장을 꾸렸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민영철은 『상경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한성부 좌윤과 우윤, 예조·호조·형조 참관, 궁내부 특진관, 황해도·전라도 관찰사 등을 역임한 정계의 유력자인 민영철은 박기중의 가장 중요한 후원인이 된 인물이다.

1889년에 설립된 기선회사의 임원은 박기중, 민건호, 정현철와 일본인 마즈오 토모노스케(松尾元之助)이다.³⁰⁾ 『해은일록』 1890년 1월 25일

29) 김동철, 「내달리지 못한 '근대의 꿈' 박기중」, 『시민을 위한 부산인물사(근현대편)』, 부경역사연구소편, 선인, 2004; 稻葉繼雄, 「釜山開成學校について-舊韓末「日語學校」の一事例-」 『地域研究』 4, 1986.

30) 藤永 壯, 「開港後の「會社」設立問題をめぐって-朴琪涼と汽船業-鐵道業(上)(下)」 『朝鮮學報』 140, 141, 1991.

에는 “기선회사에서 구입해 온 배에 경찰(박기종), 추관, 학남, 석범, 일본인 몇 사람과 함께 탔다.”고 하였다. 1월 28일에는 “기선회사 윤선에 대해 선패(船牌), 집조(執照) 등 절차를 결정했다. 그래서 경찰이 한턱 내었다. 모든 각국 인원을 동경루에 불러 요리를 대접했다. 나(민건호), 한사, 경찰(박기종), 일본 영사대리 궁본비, 서기생 옥명, 일본경부, 백이은행국장, 중야, 송미(松尾原元之助), 고하, 복전, 죽하(竹下佳隆), 청인 주장령, 일본 서기생 전결, 전국(電局)의 김학고와 오해관, 해산회사 민치덕과 정준택 합계 21명이 잔치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그는 감리서, 일본 영사관, 경찰서, 은행, 중국 영사관, 전신국, 회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 인적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마즈오(松尾)는 아사히구미(朝日組) 임원을 역임한 인물로, 박기종의 『상경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일본인의 한 사람이다. 그는 부하철도회사 설립에도 깊게 관여하였다. 부산에서 활동한 일본인으로서 박기종과 가장 관계가 깊은 인물이다.

2) 관련 사건과 공간 연구

근대는 시간과 공간의 압축의 시대다. 근대의 시공간을 압축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교통수단이다. 축력이나 풍력의 시대에서 동력의 시대로 바뀐 것이다. 동력의 시대를 열어간 주도적인 교통수단은 기선과 철도이다. 기차보다는 기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선에 그 선구적인 역할은 한 것은 기선이다.

개항 전의 통신사가 조선의 범선을 타고 간 데 비해, 개항 후의 수신사는 일본 기선을 타고 갔다. 제1차 수신사 정사인 김기수는 타고갈 기선을 처음 보고는 “몽상도 할 수 없을 만한 것이다.”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기차에 대해서도 “천둥 번개처럼 달리고, 비바람처럼 날뛰어 한 시간에 삼사백리를 달린다고 하는데도, 차체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다.”라고 타본 느낌을 적고 있다.³¹⁾ 2차 수신사 때 박기종과 함께 동행한 부산 출신 박상식은 “기차의 빠름을 형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제1차, 제2차 수신사행으로 일본에 간 박기종은 사행일기를 남기지 않아, 그가 기선과 기차를 직접 보고, 타고한 경험과 인식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박기종이 직접 체험한 기선과 기차의 경험은 다른 수신사 일행과 마찬가지로 었을 것이다. 이는 박기종이 기선회사와 철도회사 설립에 주력한 것으로도 드러난다.

이러한 경험을 한 박기종이 가장 먼저 설립한 회사는 기선회사이다. 1889년 4월 설립 인가를 받고, 일본에서 기선을 구입하여 낙동강 연안의 포구를 왕래하면서 상업활동을 할 목적이었다. 1890년부터 운항을 개시하였으며, 구포·업궁·하단 등 낙동강 주요 포구와 부산항을 왕래하는 항로를 운행하였다. 낙동강 유역에서 부산항으로는 주로 쌀, 콩 등을, 반대 방향은 소금, 명태 등을 운송하였다.³²⁾ 종전에 돛배가 담당하던 낙동강 유역의 운송을 기선으로 대체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대시키려고 한 것이다.

낙동강 유역과 부산항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철도 설립 계획으로 이어진다. 낙동강 유역에서 구포와 하단포는 부산항과 낙동강 유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낙동강 수운을 통해 수송된 곡물을 쌓아두는 곳이었다. 그런데 하단포 부근에 위험 수역이 있어 배의 침몰이 잦았으며, 당시 교통 상황으로는 육로 운반도 매우 불편했다. 그래서 하단포에서 부산항을 연결하는 약 6km의 경편철도를 계획한 것이다. 이것이 이재순, 안경수, 민영철, 박기종 등이 1898년 설립한 부하철도회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철도회사이다.³³⁾

한편, 낙동강 유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는 삼랑진으로, 박

31) 허동현, 「수신사 김기수가 바라본 근대 일본」, 『조선이 본 일본』, 국사편찬위원회 편, 두산동아, 2009.

32) 藤永 壯, 앞의 글, 1991.

33) 김동철, 앞의 글, 2005, 29쪽.

기종은 부하철도회사를 청산한 후 삼랑진과 마산을 연결하는 삼마철도 부설 계획을 위하여 1902년 6월 김석규, 이용복, 유기남, 유지연 등과 함께 영남지선철도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박기종은 부설권 획득에 필요한 경비 마련과 부하철도 설립 실패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일본공사와 교섭하였다. 그러나 삼랑진은 이미 경부철도 통과 지점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또한 삼랑진과 마산을 연결하는 마산선이 경부선 지선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 특히 마산선은 일본으로서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철도였다. 따라서 일본은 박기종에게 부설권을 경부철도주식회사에 넘길 것을 강요하였다. 결국 1903년 12월 부설권은 양도되었다.³⁴⁾

1905년 개통된 경부선은 낙동강 수운의 요충지인 구포와 삼랑진을 통과하였으며, 1905년 삼랑진과 마산을 연결하는 마산선도 개통되었다. 삼랑진은 낙동강 수운으로 운반되는 곡물류의 집산지로서, 경부선 개통 후에는 화물 대부분이 철도로 흡수되었다. 수운의 중심지인 '삼랑진'은 근대 육운 교통의 대표자인 철도, 경부선과 마산선이 교차하는 '삼랑진역'으로 대체되었다. 삼랑진은 전근대의 교통 공간이 근대적 교통 공간으로 전환된 대표적인 곳의 하나이다.

교통과 관련된 사건과 공간 이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박기종이 근대 문명, 문화를 수용하여 개항장 부산에서 뿌리내리게 한 개성학교의 설립이다. 1895년, 초량영주동에 설립된 개성학교는 조선인이 세운 부산 최초의 근대학교이다. 개성학교는 고관(1899년), 부산진(1899년), 동래(1900년)에 일어학교인 지교를 세웠다. 고관과 부산진의 지교는 이전 서당이던 구관서당, 부산서당 자리에 세워졌다. 근대적 지식과 규율, 균질화된 교육을 지향하는 근대 학교는 대표적인 근대 공간이며, 조선인에 의한 근대 공간의 생산이 초량에서 시작되었다.³⁵⁾

34) 藤永 壯, 앞의 글, 1991.

35) 양홍숙, 「개항 후 초량 사람들과 근대 공간의 형성」, 『한국민족문화』 44, 2012,

개성학교는 현재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 더 의미가 깊은데, 봉래 초등학교, 개성중학교, 부산상업고등학교(현 개성고등학교)가 그것이다. 1995년 부산상업고등학교는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상업고등학교 개교 백주년기념탑'을 학교 안에 세웠다. 그리고 기념탑 바로 앞에 박기종의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그의 흉상을 세웠다. 부산상업고등학교는 2004년에 개성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박기종이 세운 학교 이름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일본과 맺은 조약으로 개항된 부산에는 일본 영사관, 조계지가 설치되었다. 일본인 수는 1890년에는 부산 4,344명, 인천 1,612명, 원산 680명, 서울 609명, 1907년에는 부산 16,040명, 경성 13,416명, 인천 11,467명 순이다.³⁶⁾ 부산은 1907년까지 조선에서 일본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였다. 서양인의 눈에 비친 것처럼 개항장 부산은 완전한 왜색 도시(a wholly Japanese city)였다.³⁷⁾

박기종이 개항장 부산이란 근대적 공간 속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일본어 실력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부산항 내의 모든 사무가 매번 박기종의 경륜에 의존한다고 한 것이다. 개항장 부산, 근대 공간 부산의 가장 중요한 공간적 특징은 전근대 왜관의 경험이 근대의 일본인 조계로 이어진 점이다. 이러한 경험을 주도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존재는 부산 토박이 일본어 역관이었으며³⁸⁾, 그 가운데 박기종이야말로 개항기 부산의 로컬리티를 충분히 담고 있기에 당시의 로컬리티를 재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하겠다.

240쪽.

36) 木村健二, 『在外居留民の社會活動』, 『近代日本と植民地』 5, 岩波書店, 1993, 33쪽.

37) 알렌 지음, 김원모 역, 『알렌의 일기』(1884년 9월 14일), 단국대 출판부, 2008, 22쪽.

38) 이들은 그들 선조의 경험의 전통을 기리기 위하여 1906년 '유원각선생매안감고비'를 세웠다. 이 비는 현재는 부산박물관 뜰에 있지만, 현재 부산시 동구 초량6동 산중턱에 있던 것을 옮긴 것이다. 개항장 부산, 항구 도시 부산에서 부산 지역 민이 자신의 경험과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세운 유일한 기념비이다. 이 비는 전 근대와 근대, 왜관과 일본인 조계를 잇는 기념비적 상징물이다.

3) 콘텐츠 범위 설정

박기종에 대한 인물 연구와 맥락 조사를 통해 다음의 표와 같이 주요 활동-기록 연계표를 작성할 수 있었다.

〈표 1〉 주요 활동-기록 연계표(안)

연도	활동	관련 기록	관련 장소	소장처
1839.11(음)	출생	-	부산 좌천동	-
1876	1차(김기수) 수신사 통사[역관]로 일본 방문	항한필유		일본
1880	2차(김홍집) 수신사 통사[역관]로 일본방문	동도일사 수신사행등록		부산박물관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1880	옹양위부호군 임명	교지	서울	부산박물관
1883	옹양위호군 경희궁위장 임명	교지	서울	부산박물관
1886	부산항 경찰관	교지 해은일록	부산항	부산박물관 부산근대역사 관
1889	기선회사 설립	기선회사장정 해은일록	부산항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독립기념관 (사본) ³⁹⁾ 부산 근대역사관
1893.4 -1894.2	다대포첨사	교지	다대포	부산박물관
1893	동래감목관 부산항검사관 총어영기 사장	교지	부산항	부산박물관
1894.8 -1895.8	절영도첨사	교지	절영도	부산박물관
1894	부산항경찰관	교지 사진	부산항	부산박물관 부산중구청 (사본) ⁴⁰⁾
1895.6	개성학교 설립	개성학교건립 당좌수표 상경일기		부산박물관
1898	외무참서관	칙명		부산박물관

연도	활동	관련 기록	관련 장소	소장처
		상경일기 도총		
1898.5	부하철도회사 설립	부하철도회사 기록 상경일기	부산, 하단포	우정박물관 부산박물관
1899.3	대한국내철도용달회사 설립	도총	경성, 원산, 경흥(경원선, 함경선)	부산박물관
1899.5	상무소 설치	사진으로 본 부산상의 120년	부산항	부산 상공회의소
1899.8	대한철도회사 (철도용달회사 명칭 변경)	도총		부산박물관
1900	중추원의관	칙명		부산박물관
1902.6	영남지선철도회사 설립	상경일기 해제	삼랑진, 마산 (삼미철도부설)	부산 근대역사관
1905	변리공사	상경일기 해제		부산 근대역사관
1905	농업회사 설립(농지개간/수리사업)	상경일기 해제		부산 근대역사관
1907	사망(88세)	상경일기 해제	무덤 미확인	부산 근대역사관

박기종의 존재는 일본 수신사의 통사역관로 2회 일본을 방문한 이후 두드러진다. 부산박물관이 소장한 여러 임명 교지를 통해 부산에서 여러 관직을 역임했으며, 주로 항만을 중심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당시 상황과 근대에 대한 경험 등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은 개인 일기인 『상경일기』와 『도총』에 드러난다. 지속적으로 철도 회사를 설립하고 철도 부설을 계획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간 일련의 사건 역시 그의 일기와 일부 설립 관련 기록을 통해 드러난 중요한 사건이었으

39) 기선회사장정의 원본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奎18135) 하고 있으며, 독립기념관에서는 원문을 DB화한 원문 이미지를 서비스하고 있다.

40) 경찰관 사진 원본은 과리에 사는 Piry(제2대 해관장)의 손자가 소장하고 있다. 이 표에서 출처로 밝힌 사진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2005년 발간한 김재승의 『기록사진으로 보는 부산·부산항 130년』에 수록된 것이다.

며, 이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근대와 전근대 의식이 섞여 있고 민족자립을 도모하면서도 일본이라는 제국주의 열강 앞에 좌절해야 했던 개항기 부산의 로컬리티의 일면을 드러내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교통과 물류에 대한 관심 외에도, 부산에서의 신식 교육 확산이나 상업 부분에 있어서도 그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일본어 교육기관인 개성학교 설립의 주역이었으며, 부산상무소 조직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두 기관 모두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 이면에 계몽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일본의 제국주의를 일정정도 도운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이 두 영역도 박기종을 통해 부산의 로컬리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콘텐츠 설계 영역의 대상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기종을 대상으로 ‘철도’, ‘부산항’, ‘개성학교’의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사 인물 콘텐츠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범위 밖의 나머지 사건과 기록은 본 연구가 설계하는 콘텐츠 외부에 두고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하였다.

4. 박기종 콘텐츠 설계

콘텐츠 설계를 위해 우선 앞서 정의한 콘텐츠 범위에 맞추어 좀 더 심층적으로 기록과 자료를 수집하였다. 박기종과 관련하여 우선 여러 문헌에서 발굴한 1차 자료를 시작으로, 지역 전문가가 수집한 자료와 유물, 지역 박물관 소장 자료와 유물, 박기종과 관련된 공간에 존재하는 자료와 유물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존재여부와 소재정보를 확인한 기록을 중심으로 콘텐츠 설계의 밑바탕이 될 박기종 컬렉션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 설정한 3개 주제 영역별로 시리즈 및 기록과 자료를 배치하여 지역사 인물 박기종 콘텐츠를 설계하였다.

1) 자료 수집

우선 박기종 관련 문헌연구가 발굴한 다양한 기록과 자료를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그에 관하여 여러 관련 주체가 생산한 기록과 2차 자료를 아래의 표와 같이 발견할 수 있었다.

〈표 2〉 소장처별 박기종 관련 주요 기록과 자료

소장처	유형	개요	비고
부산박물관	기록	박기종 및 가족 임명 서류	조선말기 및 대한제국 시기 교지, 칙령, 칙령, 시령장 등
		상경일기	1898. 3-1899. 2
		도총	1898. 6-1899. 9
	당좌수표	개성학교 지원 당좌수표	
	박물	관복, 대례복, 통상복	조선말기 및 대한제국시기
사진	의복을 갖춘 전신 및 상반신 사진	조선말기 및 대한제국시기	
	박기종, 윤상은 등 단체 사진	-	
개인소장	기록	경부철도주식회사 주주명부	박기종 포함
부산 중구청	사진	부산항 경무관 시절 단체 사진(관복/평상복 착용; 사본)	『기록사진으로 보는 부산부 산항 130년』에 실림
독립기념관	고서	기선회사장정	1889년 (디지털화자료)
우정박물관	기록	訴狀及題存檔	부하철도회사 자료 포함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고서	기선회사장정	1889 (원본)
		부산항포경약장	1891
부산시	기록	문화재위원회 회의개최 계획 및 결과	2012. 5. 10
		고시공고 제1526호 (박기종 관복 일괄 민속자료 지정)	2012. 5. 23
KORAIL	연속간행물 기사	부산의 철도왕 ‘박기종’	2012. 6. 행복+ PlusII 철도인이 전하는 철도이야기
(중앙)이코노 미스트	연속간행물 기사	민족자본으로 ‘철도왕’ 꿈꾸다 좌절	2009. 11. 23

소장처	유형	개요	비고
KBS World	방송프로그램	철도 자립을 꿈꾼 박기종: 100년 전 우리는	-
부산일보	신문기사	부산 경제 아사, 19, 20 (개성학교, 기선회사 및 철도사업)	2004. 4. 19; 2004. 4. 21
		20세기 부산경제인	안희제(백산상회), 박기종 등 (1999. 12. 1.)
		역사속 부산사람-박기종편	2003. 7. 16
부산춧불방송	블로그	박기종, 개성학교	2011. 11. 7-8

박기종과 관련된 주요 기록과 자료는 1970년대 발굴된 후 유가족이 기증하여 대부분 부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개인 기록으로 박기종이 남긴 일기책인 『상경일기』와 『도총』이 있는데, 이는 개성학교, 부하철도회사, 경부철도주식회사 등 박기종의 활동상을 알 수 있는 기록⁴¹⁾이다. 다량의 임명 교지와 함께 그가 입었던 조선 말기 관복과 대한제국 시기의 예복, 통상복 등의 박물관과 개인 및 단체 사진도 부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의복 등의 박물관은 2012년 부산시 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결정한 부산시 기록도 확인하였다. 그가 설립한 최초의 민간철도회사, 부하철도회사 자료는 우정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訴狀及題存檔』에 실려 있는 〈회사설립 청원서〉와 그 첨부문서인 〈부하철도회사 예산서〉, 〈(농상공부 대신의)허가 결재서〉, 〈부하철도회사 정관〉⁴²⁾, 상경일기와 도총에 기록한 그의 일기 등이 있었다. 그 외에도 철도 건립이나 부산의 경제인으로서의 그에 대한 신문기사나 연속간행물기사, 방송프로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유형의 2차 자료도 다수 발견되었다.

41) 김동철, 앞의 글, 2005.

42) 김계승, 「자료: 부하철도회사」, 『동서사학』 5, 1999, 213-250쪽.

2) 컬렉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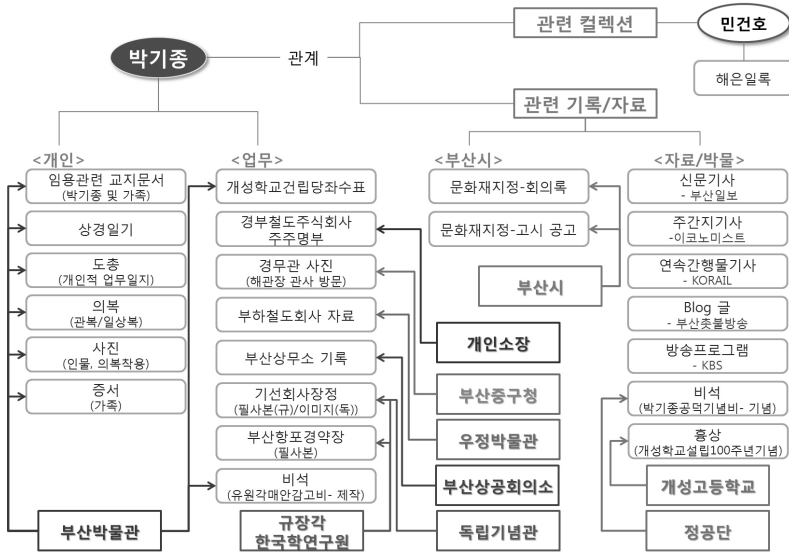
기록 중심의 지역사 인물 콘텐츠 설계를 위해 생애사 연구와 맥락 조사, 자료 수집 과정을 거치며 확인한 기록과 자료를 대상으로 박기종 컬렉션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기술(description) 작업을 진행하는 조직 과정을 거쳤다. 앞서 확인한 기록과 자료를 살펴보니, 출처가 다양하며 기록과 자료에서 정리를 위한 질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리즈 ‘생산’ 방식을 취하되 매뉴스크립트 정리 관행⁴³⁾에 따라, 본 연구가 확인한 기록과 자료를 박기종의 활동과 기록 유형의 유사성을 근거로 우선 정리하였다.

- 박기종의 임명 교지, 칙명, 사령장 등의 기록
- 박기종 가족의 임명 교지, 칙명, 사령장, 졸업장, 여권 등 기록
- 개성학교 금수취록(개성학교 재정 지원 당좌수표)
- 경부철도주식회사 주주명부(박기종 포함)
- 부하철도회사 건립 관련 기록
- 부산항 경무관 시절의 사진 2점(해관장 Piry 관사에 초대받아 촬영)
- 박기종(평상복/예복 착용) 및 가족사진
- 박기종의 일기(상경일기 1권과 도총1, 2권)
- 박기종의 의복(평상복 및 예복)
- 고서(필사본) 2점 - 기선회사장정, 부산항포경약장
- 부산시 기록(의복 문화재 지정 관련 회의록과 고시)
- 철도인, 교육인, 경제인으로서 박기종을 다룬 기타 논문, 신문기사, 블로그, 방송프로그램 등의 2차 자료

이상 1차 정리 결과 박기종에 대한 주요 기록과 자료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박기종을 출처로 볼 수 있는 기록과 박기종 외의 출처로 보아야 하는 기록으로 나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3) Roe, Kathleen D, *Arranging & Describing Archives & Manuscripts*, SAA, Chicago, 2005, pp.119-130.

(그림 1) 박기종 관련 주요 기록과 자료의 정리(안)



박기종이 주체가 되었던 활동의 기록이거나 박기종을 수신인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이 박기종을 출처로 볼 수 있는 기록으로 판단하였는데, 여기에는 박기종과 그 가족의 임명장과 기타 문서, 개성학교 금수취수록, 경부철도주식회사 주주명부, 부하철도회사 건립 관련 기록, 박기종의 사진, 일기, 의복, 고서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박기종의 의복을 민속자료로 지정하기 위해 부산시가 진행한 회의의 결과인 회의록과 고시와 그를 주제로 다룬 다양한 2차 자료는 박기종과 관계를 갖는 박기종 외의 출처에 포함되는 기록과 자료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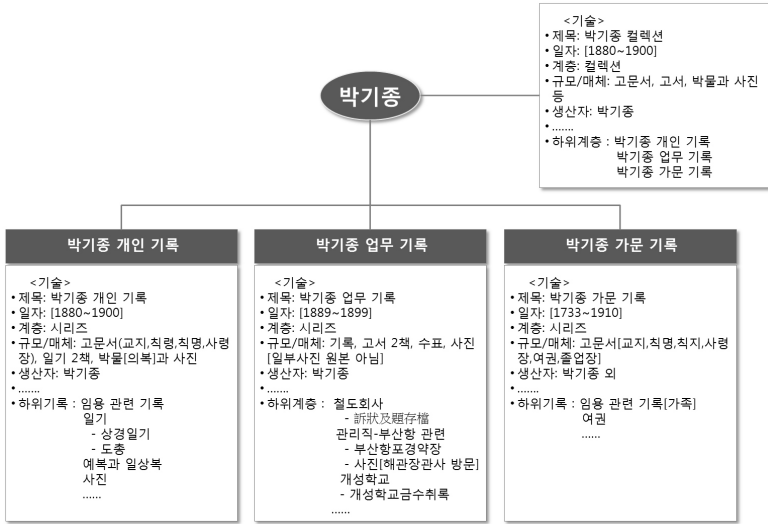
한편, 박기종을 출처로 하는 기록과 자료는 다시 박기종 개인이 생산하거나 수신한 기록과 자료, 그리고 관리나 회사 임원 자격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록과 자료로 나뉠 수 있었다. 박기종의 개인 일기와 임명장, 사진과 의복 등은 개인 기록으로, 그 외의

기록과 자료는 업무상 생산된 기록과 자료로 구분하였으며, 개인 기록 중 박기종 가문 구성원의 기록은 박기종 가문 기록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었다. 업무상 생산된 기록의 수가 많지 않으나, 그의 활동은 크게 개성학교 건립과 철도회사 설립, 부산항에서의 활동 등으로 뚜렷이 나뉠 수 있으므로, 이후 기술시 업무 기록 시리즈의 하위 시리즈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이후 콘텐츠 개발에서도 유용한 영역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박기종을 출처로 볼 수 없는 기록과 자료는 박기종 컬렉션에 포함시키지 않고, 외부 개체로 박기종 컬렉션과 연결하는 구조를 택하였다. 박기종 유물의 문화재 지정 활동에서 산출된 부산시 기록과 박기종을 주제로 다룬 여러 2차 자료의 경우는 박기종과 관계를 갖는 별도의 컬렉션에 속한 기록과 자료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박기종과 함께 활동했던 부산지역의 또 다른 인물인 민건호 역시 그의 일기에서 박기종을 다루고 있으므로, 추후 민건호에 대한 별도의 지역사 인물 컬렉션을 구성할 것을 가정하여 박기종 컬렉션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2차 정리 과정을 거쳐 박기종 컬렉션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조직하였다. 앞서 구분한 바대로 박기종 컬렉션은 그의 '개인 기록'과 '업무 기록', 그 외 그의 '가문 기록'으로 구분하여 시리즈를 구성하였다. 특히 '업무 기록' 시리즈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활동을 중심으로 '철도회사' 기록과 '관리직-부산항 관련' 기록, '개성학교' 기록으로 나누어 하위시리즈를 구성하였다. 각 계층별로 국제기록물기술규칙인 ISAD(G) 2판을 기준으로 간략 기술을 하였으며, 이후 콘텐츠 영역에 기술을 배치할 때에도 이 기술 내용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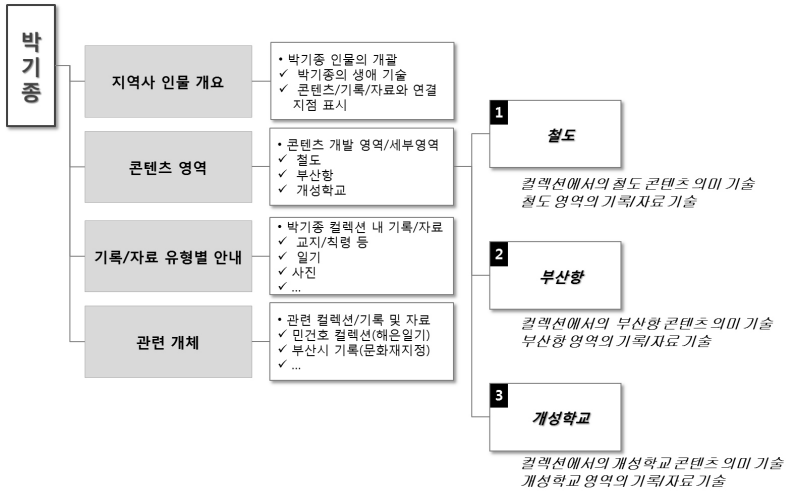
(그림 2) 박기중 컬렉션 조직(안)



3) 사례 콘텐츠 설계

이상 박기중이라는 지역사 인물을 대상으로 구성된 컬렉션을 기반으로, 인물 콘텐츠를 사례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콘텐츠의 구성도의 설계하였으며, 사례 콘텐츠로 ‘철도’ 영역의 그의 활동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하철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세부 콘텐츠를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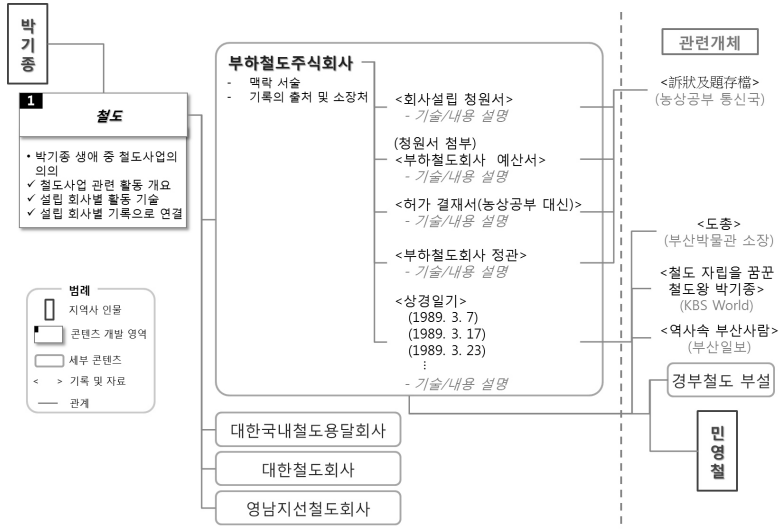
〈그림 3〉 지역사 인물 ‘박기중’ 콘텐츠 전체 구성도(안)



우선 전체 콘텐츠의 구성은 위의 그림과 같이 설계하였다. 박기중이라는 지역사 인물에 대한 간략한 생애사를 기술해주면서 그의 주요 활동 중 콘텐츠로 개발된 대상 영역이나 컬렉션 내의 기록과 자료를 연결해준다. 콘텐츠 개발 영역과의 연결 외에도, 지역사 인물 컬렉션이 포괄하는 기록과 자료를 유형별로 안내하는 영역은 물론 관련 인물이나 컬렉션, 기록과 자료로 연결되는 ‘관련 개체’ 영역을 함께 구성하였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최대한 콘텐츠 개발에 있어 의도나 주관성을 배제하고, 간략한 기술과 함께 해당 영역에 속하는 기록을 제공해주어 콘텐츠 이용자가 나름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내 인물 콘텐츠 구성 사례와 같은 작가나 전문가의 스토리텔링은 최소화하고 기록과 관련 자료, 관련 콘텐츠, 관련 인물을 연결해주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그림 4〉 철도 영역 콘텐츠 설계 사례: 부하철도주식회사 세부 콘텐츠(안)



전체적인 콘텐츠 구조 설계에 맞추어 위의 그림과 같이 박기중 컬렉션 중 철도 영역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사례로 구성하였다. 앞서 진행한 박기중의 생애사 연구에서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지역사 인물인 박기중의 생애에 있어 철도사업이 지니는 의의를 개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철도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기술하고, 이를 다시 그가 설립한 회사별 활동으로 세분하여 기술하면서 설립 회사별 기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택하였다.

철도 영역의 기술을 통해 본 연구가 사례 구축한 ‘부하철도주식회사’ 세부 콘텐츠로 연결하고, 이 철도회사에 대한 내용을 드러내주는 기록을 배치하였으며, 각 기록에 대한 기술 내용을 함께 제시하였다. 우선 이 회사에 대해 간략하게 맥락정보를 기술하고, 이 세부 콘텐츠와 연결된 기록과 자료를 그 소장처와 함께 배치하였다. ‘부하철도주식회사’에 대한 기록으로 우선 〈회사설립 청원서〉, 청원서에 첨부된 〈부하철도회

사 예산서), 농상공부 대신의 〈허가 결재서〉, 그리고 〈부하철도회사 정관〉을 배치하였다. 한편, 이들 기록은 우정박물관이 소장한 『訴狀及題存檔』에 함께 묶여 있는 문서이므로, 이 자료와도 연결해주는 구조를 설계하였다. 부하철도회사에 대해서는 그의 개인 일기인 『상경일기』에도 여러 날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이에 『상경일기』 중 부하철도회사를 언급하거나 이에 대해 기록한 날의 일기에 대한 정보와 그 내용도 함께 배치하였다. 이 일기들은 그의 또 다른 일기체 자료인 『도충』과 연관관계를 맺어주었는데, 『도충』은 부하철도회사 설립 시기 이후 일기이지만 여타 철도회사의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하철도주식회사’ 세부 콘텐츠는 다양한 2차 자료 생산 지원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철도인으로서의 박기종을 다룬 2차 자료와도 연결해 주었다. 『상경일기』 상에 철도회사 건립에 있어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인물인 ‘민영철’이라는 인물 콘텐츠(가상)와도 연결 관계를 맺어 보여주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특정 시기에 공간을 살아간 인물을 통해 그 지역의 로컬리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로컬리티 기록화의 한 방법으로 지역사 인물 콘텐츠 개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의 로컬리티를 대표하는 인물인 박기종을 대상으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콘텐츠를 사례 구축해 보았다. 아직 지역의 로컬리티를 재현할 수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 연구는 일반적인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과 인물 기록화 방법을 바탕으로 지역사 인물을 기록화하고 이에 기반을 둔 콘텐츠 개발 방

법을 제안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제안한 지역사 인물 기록화 및 콘텐츠 개발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 고유의 로컬리티를 확인하고 이를 투영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함으로써, 특정 시기 특정 공간의 정체성이 투영된 지역사 인물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단, 로컬리티 기록화에 지역민과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는 기존의 연구를 반영하여 본 연구 역시 이를 콘텐츠 개발의 마지막 절차로 제안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방식과 세부 절차는 연구의 한계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 몇몇 해외 아카이브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촉진 시키거나 그들의 참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내의 논의가 미미하기 때문이었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로컬리티, 서로 다른 시기의 지역사 인물을 선정하여 기록화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축적한다면 지역사 인물 콘텐츠 개발 방법론은 물론 공간 및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리티 기록화와 콘텐츠 개발 방법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Developing Archival Contents for Documenting Local Historical Characters

Hyun, Moonsoo & Kim, Dong-Chul

Locality documentation and archival contents development cover local historical characters that are mirrors reflecting localities. The study is to propose a methodology of designing archival contents for documenting a local historical character representing the locality based on his/her records. By the methodology, sample archival contents, Park Ki-jong contents is designed because he is the most representative of the locality of Busan between the late 1800 and the early 1900. Firstly, it asks a question on how it chooses a character representing the target locality. After the character is selected, his/her life and context is analysed. Based on the analysis, it set up the coverage of developing the contents and identifies relevant records and materials. Finally, the archival content for a local historical character is designed.

It is important that the study proposes a method of developing archival contents which can be applied to a character-oriented archival contents development. For reviewing the applicability of the method, it is expected of further practical uses in character-oriented archival contents development representing the localities.

Key words: archival contents development, documenting local history,
character-oriented archival contents, Park Ki Jong, Busan